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2-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어,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정치 참여, 공감대 확산,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저항 과도한 참여, 정치 엘리트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자료

[가]

미투 운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미투(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누리 소통망(SNS)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하였고,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 움직임은 수많은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현직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로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치인 등 2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 이 나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나아가 정치 고관여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단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정치가 선거 이상의 그 무엇이 됐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투표권 행사라는 제도화된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양한 지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 대중행동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팬덤 형태로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정에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즉,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치엘리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들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권리 행사로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맨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민(民)의 통치’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그 ‘민’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이념은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과 이익 조정을 뜻할 수도 있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일군의 대중이 열렬히 정치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이 설익은 주권자 민주주의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양상한 관념에 지배돼 일부 결집한 대중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라]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자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자치도 지역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면서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다. 산부인과에 하나뿐인 인큐베이터는 백인 전용이었고, 아기들의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는 백인과 구분 짓기 위한 흑인 전용 대학이 있었고, 강도 사건 때마다 흑인들이 용의자로 몰렸다. 길거리에 널린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으면 곧바로 철장에 가뒀다. 저항 운동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백인 교수인 하워드 진이 학생들에게 ‘앉아 있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전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방식의 ‘비폭력 저항’이었다. 진은 학생들에게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이다.”라고 가르쳤다. 진은 흑인들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자유’의 증진에 기여했다.

[사]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

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

행정이 공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전문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로서 관료는 시민자질(civic capital)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자질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고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말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공유함으로써 시민자질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 시민을 공익 결정에서 실제적 지혜를 제공하고 통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극적 시민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인간적 특성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성을 모든 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국가(polis)의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플라톤의 주장에서 유래한다. 행정에 의한 편익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이 그리는 관료상은 진리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슈퍼시민이었다.

[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유효서명을 취득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사명 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2009년 진보성향의 사회당이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유효서명을 받았었고, 이것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는 4주인데 6주로 늘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도 찬성률이 낮았다. 반대 122표, 찬성 61표가 나왔다. 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에서는 반대 10표, 찬성 32표가 나왔다. 국론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지연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는 이 안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투표한 사람들 중 66%가 반대했다. 그리고 모든 칸톤(자치주)에서 기각됐다. 긴 휴가를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휴가가 4주나 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받으면서 6주나 되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솔직히 도둑놈 심보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된 사례였다.

[문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25점]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

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2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3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10한사04-06]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제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바]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바]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 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 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 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다] [바]
성취 기준 2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최병택 외	천재 교육	2021	288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 교과서	2018	65-66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 교과서	2018	9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 출판사	2021	108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284	제시문 [사]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신진옥, 이세영	한겨레21	20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77.html	제시문 [다]	○
시민참여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한세억, 주선옥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437-438	제시문 [아]	○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는 수백년 걸쳐 진화해온 체계다	리누스 폰 카스텔 무스	『월간 주민자치』	2020	56	제시문 [자]	○

5. 문항 해설

[논제 1]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주어진 분량에 맞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1> (501~600자)

-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1>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가]~[바]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나],[다]는 시민 참여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한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 [라], [마], [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 [다]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1]

[가]~[바]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다루고 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나],[다]는 시민 참여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한다.

[가]는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SNS에 ‘미투’라는 해시태그(#)로 공유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성평등 실현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지방 자치가 민주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풀뿌리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마]는 비록 ‘나 하나’는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역설한다. [바]는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비폭력 저항 방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운동이 보편적 자유 증진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에 [나]는 수준 낮은 정치 참여와 과도한 시민 참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치팬덤 현상으로 변질되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67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정치와 법’, ‘한국사’와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근거하여 출제된 [논제 1]은 ‘정치와 법’의 (3) 정치과정과 참여사회에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언론, (2) 민주 국가와 정부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와 관련되고 ‘한국사’ 과목의 (4)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시민 사회의 성장과 관련되며 ‘생활과 윤리’의 (3) 사회와 윤리 3. 국가와 시민의 윤리: 참여하는 시민의 의무인가? ② 민주시민의 참여와 관련된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 과목의 (4) 사회사상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제는 고등학교 해당 과목 교육과정에 충실히 근거하고 있다. [논제 1]이 요구하는 바는 전체의 중심 주제인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여 자료를 분류하여 요약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 교과목의 교육과정과도 두루 연관되는데 먼저 사회와 교육과정을 비롯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는 능력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자료에 드러난 주제를 찾고 글의 맥락 속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과 문해력 등을 요구하므로 본 논제를 위해 요구되는 필요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역량 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전술하였듯이, [논제 1]은 ‘정치와 법’,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을 토대로 하여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제시문 [가]는 SNS에 미투운동을 통해 인권보호와 성평등 실현의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한국사’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고, 제시문 [나]는 수준 낮은 정치 참여와 과도한 시민 참여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치 팬덤 현상으로 변질되면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라]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치와 법’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고 제시문 [마]는 내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나타낸 시로서, ‘정치와 법’ 교과서에 실린 시를 인용하였고 ‘문학’ 과목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바]는 흑인 학생들의 비폭력 저항 방식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보편적 자유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재구성하였고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바]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종합하면 고등학교의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출제되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논제 1]과 관련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적절히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본 논제에 대한 채점 기준으로서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의 입장에 맞춰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고지 분량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라는 고교 국어과 성취기준에도 부합한다.

채점 기준으로서 내용 평가 또한 비교적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채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논제 1]의 채점 기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판단한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자료를 분류하여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게 요약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논제 1]의 제시문 [가]~[바]는 다소 짧은 서로 다른 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 입장에서 하나의 긴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편하게 독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술형인 [논제 1]을 위해 같은 입장을 가진 자료별로 분류한 후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30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논제 1]에서 주어진 501자 이상에서 600자 이하는 논술을 대비해온 학생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논제 1]의 중심 주제는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되었고, '한국사',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와도 관련된다. 본 논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 및 원리 이해, 독해력, 자료 분석력, 내용을 분류하는 능력, 글의 맥락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 등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안에 있다. 아울러, 본 논제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이에, [논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적합하게 출제되었다고 판단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통합사회,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어,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정치 참여, 공감대 확산,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저항 과도한 참여, 정치 엘리트, 공감과 연대의식, 시민자질 적극적 시민성, 정치적 의사결정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자료

[가]

미투 운동은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을 ‘미투(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누리 소통망(SNS)에 올려 공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성범죄에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해 시작하였고,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 및 일반인들이 해시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이 움직임은 수많은 성 추행 및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9일 현직 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검사장이었던 상사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후 문화·예술·체육계를 비롯해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연극 연출가의 성추행 사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폭로되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더불어 시인, 극작가, 배우, 정치인 등 20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 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 등을 금지하고 인권 보호와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다]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한국 사회와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 이 나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 나아가 정치 고관여층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단지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게 됐다. 이제 정치가 선거 이상의 그 무엇이 됐다는 뜻이다. 투표권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는 투표권 행사라는 제도화된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다양한 지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투표장에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 등 대중행동을 벌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팬덤 형태로 정치인의 지지자 집단을 형성하거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의 노선과 지도부의 결정에 조직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즉,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주체가 정치엘리트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들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민주적 권리 행사로서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마이클 맨은 『민주주의의 어두운 이면』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민(民)의 통치’라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여기서 그 ‘민’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이념은 다원주의적 상호 인정과 이익 조정을 뜻할 수도 있고,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념으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믿는 일군의 대중이 열렬히 정치에 관여해 영향을 미칠 때, 이 설익은 주권자 민주주의의 열정은 위험한 것이 된다. 더구나 정치엘리트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변한다는 앙상한 관념에 지배돼 일부 결집한 대중의 요구에 따른다면 그것은 곧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라]

지방 자치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분립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자치는 민주 정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 자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자치도 지역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의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따라 지방 자치는 주민이 자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면서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바]

갓 태어난 쌍둥이가 죽었다. 산부인과에 하나뿐인 인큐베이터는 백인 전용이었고, 아기들의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에는 백인과 구분 짓기 위한 흑인 전용 대학이 있었고, 강도 사건 때마다 흑인들이 용의자로 몰렸다. 길거리에 널린 백인 전용 의자에 흑인이 앉으면 곧바로 철장에 가뒀다. 저항 운동은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백인 교수인 하워드 진이 학생들에게 ‘앉아 있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다. 도서관에서 흑인 학생들이 백인 전용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방식의 ‘비폭력 저항’이었다. 진은 학생들에게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은 없다. 역사가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중립을 지키는 것은 그 잘못에 동조하는 행위이다.”라고 가르쳤다. 진은 흑인들과 함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함으로써 ‘보편적 자유’의 증진에 기여했다.

[사]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고 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른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 문제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감과 연대 의식을 가지려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밝은 미래 지구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

행정이 공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전문직업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로서 관료는 시민자질(civic capital)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자질은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그리고 통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능력을 말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 공유함으로써 시민자질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 시민을 공익 결정에서 실제적 지혜를 제공하고 통치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적극적 시민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인간적 특성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적극적 시민성을 모든 이에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논리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도시국가(polis)의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플라톤의 주장에서 유래한다. 행정에 의한 편익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을 관료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초월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플라톤이 그리는 관료상은 진리에 대해 우월한 지식을 소유한 슈퍼시민이었다.

[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 이상 시민의 유효서명을 취득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사회의 주인이다.'라는 사명 의식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2009년 진보성향의 사회당이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 유효서명을 받았었고, 이것이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는 4주인데 6주로 늘리는 것은 너무 길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 이후 의회에서도 찬성률이 낮았다. 반대 122표, 찬성 61표가 나왔다. 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민위원회에서는 반대 10표, 찬성 32표가 나왔다. 국론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지연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급휴가를 늘리겠다는 이 안은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투표한 사람들 중 66%가 반대했다. 그리고 모든 칸톤(자치주)에서 기각됐다. 긴 휴가를 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미 법으로 규정된 휴가가 4주나 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임금을 높게 받으면서 6주나 되는 휴가를 간다는 것은 솔직히 도둑놈 심보다.'라는 공감대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국민투표의 결과가 일치하여 모두가 한마음이 된 사례였다.

[문제 II]

[문제 I]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

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시문 [가]
	성취 기준 3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제시문 [라] [자]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시문 [사]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10한사04-06]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자]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자]
	성취 기준 2	[12윤사03-02] 영혼의 정의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윤리사상과 이론 및 실천에서 탁월성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을 비교하여 덕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아]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마]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다] [바] [자]
	성취 기준 2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가]~ [자]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한국사	최병택 외	천재 교육	2021	288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 교과서	2018	65-66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 교과서	2018	9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 출판사	2021	108	제시문 [바]	○
고등학교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	2017	284	제시문 [사]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신진옥, 이세영	한겨레 21	2022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77.html	제시문 [다]	○
시민참여의 한계와 대안적 논의	한세억, 주선옥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437-438	제시문 [아]	○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는 수백년 걸쳐 진화해온 체계다	리누스 폰 카스텔 무스	『월간 주민자치』	2020	56	제시문 [자]	○

5. 문항 해설

[논제 II]는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 중에서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자]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 [사]의 경우,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마],[바]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제시문 [아]의 경우,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나],[다]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시민 참여의 사례로 [가],[라],[마],[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나],[다]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찍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가], [라], [마], [바]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여러 사회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 주민 자치의 실현, 보편적 자유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등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나], [다]의 관점을 지지할 경우: 시민 참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나 과도하거나 배타적인 이념에 근거한 시민 참여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지구촌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이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나 시간 및 노력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긍정적 시민 참여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II]

(1) [가],[라],[마],[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역할에 관한 두 관점 중 나는 [가],[라],[마],[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여러 사회 문제 해결과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 주민 자치의 실현, 보편적 자유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 등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지구촌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경영에 다수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 투표로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한마음이 된 긍정적 시민 참여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631자]

(2) [나],[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의 역할에 관한 두 관점 중 나는 [나],[다]의 관점을 지지한다. 시민 참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나 과도하거나 배타적인 이념에 근거한 시민 참여는 의사 결정의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나 자신이 지구촌의 한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지구촌 문제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함을 역설한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나 시간 및 노력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아]는 일반 시민의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자질을 비판하면서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 참여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모두를 위한 의무 유급 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이 유효서명을 취득하여 개헌 발의가 된 후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를 보여준다. 시민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투표에 이르기까지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많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었으나 결국 원안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692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문제 I]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 II] 또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정치와 법’, ‘한국사’, ‘통합사회’와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즉, [문제 II]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근거하고 있다. [문제 II]가 요구하는 바는 [문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을 지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지지한 관점으로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각 텍스트 간의 관계와 맥락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이해하는 독해력 등도 요구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두 글의 논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제는 ①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 ② 자신의 의견을 제시문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히는 능력, ③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④ 논리적 추론력, ⑤ 비판적 사고 능력, ⑥ 통합적 사고 능력, ⑦ 창의적 사고 능력, ⑧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등을 두루 측정한다. 이러한 [문제 II]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문제 I]과 마찬가지로 [문제 II] 또한 고등학교 교과목인 ‘정치와 법’, ‘한국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을 토대로 하여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다. 제시문 [가]는 SNS에 미투운동을 통해 인권보호와 성평등 실현의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고, 제시문 [나]는 수준 낮은 정치 참여와 과도한 시민 참여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치 패덤 현상으로 변질되면 민주주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라]는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고, 제시문 [마]는 내가 먼저 참여함으로써 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나타낸 시로서, ‘문학’,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바]는 흑인 학생들의 비폭력 저항 방식인 시민 불복종 운동이 보편적 자유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치와 법’,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고, 제시문 [아]는 진리에 대한 우월적 지식을 소유한 관료들이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시문 [자]는 유급 휴가 6주 안이 개헌 발의된 후 국민투표로 통해 기각된 스위스의 사례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문 [가]~[자]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근거한다. [문제 II]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긴 자료와 교과서 외의 자료에도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외의 자료일지라도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언론 보도나 교양서적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논제 II]에 대한 제시문 [가]~[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논제에 대한 채점 기준으로서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 입장에 맞춰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고지 분량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라는 고교 국어과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해서는 [논제 II]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가지 각 관점에 대해 구분하여 채점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면서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채점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은 필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하며 읽는 능력과 관련되며,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 등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된 내용과도 부응한다.

그러므로 [논제 II]의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한 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한 것이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논제 I]의 분류 기준인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의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한 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한 것이다. 이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 II]는 [논제 I]을 거친 후 실질적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것이며, [논제 II]에서 다루는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사]~[자]의 분량을 모두 합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독서 영역 제시문 1개 분량 정도라는 점에서 볼 때, 주어진 40분은 충분하다. [논제 II]는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을 지지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지지한 관점으로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답안작성 분량인 601자 이상에서 700자 이하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답안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분량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논제 II]를 위한 필요역량인 자신의 의견을 제시문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히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추론력, 비판적 사고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볼 때 매우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논제 II]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된다. 그러므로 [논제 II]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본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2-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수학, 독서,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효과적인 정치 참여, 과도한 참여, 정치적 혼란 선거참여율과 행복지수의 이차함수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비용을 감내하며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분한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나는 그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이 정치 참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헌신적인 정치 참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처럼 수단의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다.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쫓겨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 특히 전국적인 문제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관심을 쏟을 시간적·경제적 여유와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질적으로 수준 높은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양질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여 그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도한 참여는 다양한 요구를 산출하여 정치와 행정 과정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정된 의사의 일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치적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문제 III]

국가 A에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 ① 선거참여율 x 에 따른 행복 지수 y 는 $y = -5x^2 + ax + b$ 라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따른다.
- ② 선거참여율의 범위는 $0 \leq x \leq 1$ 이다.
- ③ 행복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는 것을, 값이 클수록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아무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행복 지수는 $\frac{3}{5}$ 이고, 모두 선거에 참여했을 때 행복 지수는 $\frac{18}{5}$ 이다.

- (1) a 와 b 값을 구하고,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후 y 절편과 $x = 1$ 에서의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2) 행복 지수가 최대가 되는 선거참여율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행복 지수 값을 구한 후 (1)에서 그린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x, y)를 표시하시오.
-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논술고사는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가],[라],[마],[바]는 시민 참여가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이고 [나],[다]는 시민 참여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사회계열 교과과정에서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와 윤리’, ‘민주 국가와 정부’, ‘정치 과정과 참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사회사상’ 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비슷한 수준의 관련 서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이와 이차함수의 최댓값 결정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제시문 [나]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나]
	3. 교과명: 수학		
과목명:		관련	

	성취 기준 1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논제 Ⅲ
	성취 기준 2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조일수	한국교 육논총	2020	23-50	제시문 [나]	○

5. 문항 해설

<논제 Ⅲ>에서는 주어진 두 점을 이용하여 a 와 b 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든 후 이들의 해를 구하여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에 관한 함수를 구하고 이를 x 와 y 의 그래프에 나타내는 능력을 검정하고 있다. 그리고 x 를 제곱식으로 표현하여 y 가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한 후 이 점이

x 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점이 y 의 최댓값임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왼쪽 구간에서는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증가하지만, 오른쪽 구간에서는 값이 증가하면서 y 값이 감소함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참여율과 행복 지수의 관계는, 과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나]의 지문에 부합하는 관찰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만점: 논제 당 100점 (3논제 도합 300점)

기본 점수: 논제당 60점

기준 점수: 상(100점 ~ 90점), 중(89점 ~ 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 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답안을 전혀 작성하지 못했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Ⅲ> (원고지 범위 내 자유롭게 작성)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논제 Ⅲ>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① 주어진 두 점을 이용하여 a 와 b 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해당 값들을 구하면 10점 가점

② x 와 y 의 그래프를 그리되, x 의 구간을 0과 1까지 표시하고, 특정 점까지 y 가 증가하다

그 점부터 y 가 감소하는 형태로 표시하고, 0점, y 절편($0, \frac{3}{5}$), ($1, \frac{18}{5}$) 점을 표시하면

가점 10점

③ y 를 x 에 관한 제곱식으로 표현한 후 제곱식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y 값을 구하면 x 가

$\frac{4}{5}$ 일 때 y 가 $\frac{19}{5}$ 의 값이 된다는 것을 보이면 8점 가점. 이 점을 위에서 그린 그래프에

나타내고 좌표를 표시하면 2점 가점

④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참여율이 $\frac{4}{5}$ 의 값을 가질 때까지는 선거참여율이 오를수록

행복 지수가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선거참여율이 오를수록 행복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을 논의하고,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선거참여율로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나]의 핵심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을 논의하면 10점 가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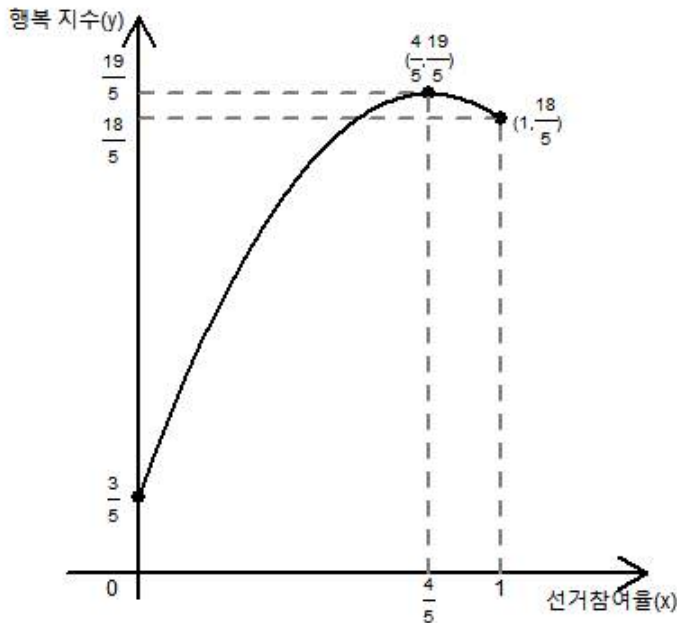
(1) 주어진 이차함수 $y = -5x^2 + ax + b$ 가 두 점 $(0, \frac{3}{5})$ 과 $(1, \frac{18}{5})$ 을 지나므로 이 점을 이차함수에 대입한, 다음의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 a 와 b 값을 구한다.

$$\textcircled{1} \quad \frac{3}{5} = -5 \times 0^2 + a \times 0 + b$$

$$\textcircled{2} \quad \frac{18}{5} = -5 \times 1^2 + a \times 1 + b$$

①에 의해 $b = \frac{3}{5}$ 이고, 이를 ②에 대입하여 a 에 대해 정리하면, $a = 8$ 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

한 함수는 $y = -5x^2 + 8x + \frac{3}{5}$ 이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2) 답안 가)

$$y = -5x^2 + 8x + \frac{3}{5} = -5(x^2 - \frac{8}{5}x + \frac{16}{25}) + 5 \times \frac{16}{25} + \frac{3}{5} = -5(x - \frac{4}{5})^2 + \frac{19}{5}$$

선거참여율 $\frac{4}{5}$ 는 $0 \leq x \leq 1$ 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복 지수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일 때 $\frac{19}{5}$ 를 최

댓값으로 갖는다. 위의 그래프에 이 점 $(\frac{4}{5}, \frac{19}{5})$ 을 제시하였다.

답안 나) 미분을 이용한 답안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함수는 위로 볼록한 함수이고 이를 x 에 대해 미분하면, $0 = -10x + 8$ 이므로 $x = \frac{4}{5}$ 에서 최댓값을 갖는다. 선거참여율 $\frac{4}{5}$ 는 $0 \leq x \leq 1$ 범위

내에 있으므로, 행복 지수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일 때 $\frac{19}{5}$ 를 최댓값으로 갖는다. 위의 그래프에 이 점

$(\frac{4}{5}, \frac{19}{5})$ 을 제시하였다.

(3) 국가 A의 사례는 선거참여율이 $\frac{4}{5}$ 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행복 지수가 증가하지만, 선거참여율이 $\frac{4}{5}$ 보다 큰 구간에서는 선거참여율이 증가할수록 행복 지수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정치 참여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 지문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절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절한가?

[문제 Ⅲ]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인 ‘정치와 법’, 도덕과 교과목인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수학과 교과목인 ‘수학’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문제 Ⅲ]의 주요 내용은 ‘정치와 법’의 (3) 정치과정과 참여사회에서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언론, (2) 민주 국가와 정부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와 관련되어 있고 ‘생활과 윤리’의 (3) 사회와 윤리 3. 국가와 시민의 윤리: 참여하는 시민의 의무인가? ② 민주시민의 참여와 관련되어 있으며 ‘윤리와 사상’ 과목의 (4) 사회사상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①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수학’의 주어진 4개의 조건 및 연립방정식과 이차함수를 활용하여 선거참여율과 행복지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대해 평가한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도덕과 및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Ⅲ]은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해력, 수리 능력, 논리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두루 요구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 Ⅲ]의 주요 개념 및 내용은 고등학교 ‘수학’의 이차함수와 연립방정식,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의 ‘윤리와 사상’과 관련된다. 제시문 [나]는 수준 낮은 정치 참여와 과도한 시민 참여의 문제점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와 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이에, 제시문 [나], [문제 Ⅲ]의 자료에 담긴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근거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 Ⅲ]과 관련된 제시문 [나], [문제 Ⅲ]의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거참여율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그래프에 표현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바 이므로,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본 문제에 대한 채점 기준으로서 정량 평가는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서 학생의 입장에 맞춰서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 원고지 분량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라는 고교 국어과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 또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채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주어진 4개의 조건을 바탕으로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근을 찾아내어, 가상 국가의 선거참여율에 대한 이차함수로 나타내는 행복지수를 구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함수의 최댓값을 찾고 이 점을 그래프 위에 나타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목의 목표와 부합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의 연립방정식, 이차함수 및 문제에 주어진 4개의 조건을 활용하여 선거참여율과 행복지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과도한 정치참여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50분이라는 시간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논제 Ⅲ]은 수리논술로서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고, [논제 Ⅰ]과 [논제 Ⅱ]와는 달리, 일정한 분량의 글자 수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답안작성 분량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과, 사회과, 도덕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된 역량들(통합 논술 능력, 주어진 자료에 대한 분석력 및 해석력, 문제에 대한 이해력, 수리 능력, 논리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등)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적합하며 해당 교과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부합하는 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3-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세계사, 국어, 독서,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균열, 갈등, 국민혁명, 산업혁명, 유대감,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혁명, 사회적 불평등, 적재적소, 동질성
예상 소요 시간	30분	

2. 문항 및 자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비교적 오랜 정당 정치의 역사를 갖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유사한 특성의 정당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정당 구성의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자당 등은 나라는 다르지만 비슷한 정당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 각국의 정당체계의 구성이 다르다. 이러한 정당체계의 유사성과 차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립셋과 록칸은 균열(cleavage)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정당체계의 등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국가 공동체 내 균열 체계의 기원과 발전을 위한 조건에 대해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토대로 립셋과 록칸은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초래한 네 가지 균열의 형태를 제시했다. 이들이 주목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다. 국민혁명은 두 가지 균열을 초래했다. 하나는 중심부 대 주변부 간의 균열이었다. 국민국가의 성장은 영토 내에서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통일화와 표준화를 진전시키게 되어 그만큼 지방에 존재해 온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혁명에 의해 초래된 또 다른 균열은 교회와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었다. 국민국가 건설 이전까지 유럽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교회가 종교적 권위,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치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국가의 등장은 영토 내에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를 넘어서는 국왕이라는 세속적 권위, 세속적 권력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점차 증대된 부의 배분을 둘러싸고 또 다른 두 가지 균열을 만들어 냈다.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이해를 둘러싼 균열이었다.

[나] 범죄와 처벌은 모든 사회구조를 떠받치는 의례의 기본적인 일부다. 의례란 집단이 수행하는 표준화된 예식적 행동임을 되새겨 보라. 여기에는 공통의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의례를 통해 사람들을 집단에 더 단단히 묶어놓는 상징적인 믿음이 만들어진다. ‘범죄-처벌’ 의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법에 대한 믿음을 다시 확인해 주고 사회 구성원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는 감정적 유대를 만들어 낸다. 범죄자는 이렇게 유대감을 만들어 내는 기계에 꼭 필요한 원료이지 그 기계의 혜택을 나눠 가지는 수혜자가 아니다. 범죄가 없다면 처벌 의례도 없을 것이다. 범죄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통으로 분노를 느낄 때 생겨나는 도덕 감정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다. 범죄와 처벌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사회를 묶어 주는 유대감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다] 영화 <설국 열차>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각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후 조절 물질을 살포하였는데 그 물질 때문에 지구에 빙하기가 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설국 열차 안뿐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탑승한 이 열차는 계급에 따라 객실이 나누어져 있어 앞쪽으로 갈수록 상류층이, 뒤쪽으로 갈수록 하류층이 생활하고 있다. 이 열차는 17년째 달리고 있는데 꼬리 칸에 타고 있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꼬리 칸 사람들과 함께 상류층이 탄 앞쪽 칸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

<설국 열차>는 지배 계급이 만든 구조 속에서 사는 피지배 계급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 피지배 계급은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 계급이 정한 구조 속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백질 블록만 먹으며 앞쪽 칸 사람들의 횡포를 그대로 받고 살아간다. 결국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꼬리 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라] 미국의 한 경제 정책 연구소가 미국의 매출 기준 350대 기업 CEO들의 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올해 평균 1,550만 달러(약 17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봉은 지난해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4.5%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은 2.2% 인상되었다. 이렇게 역할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 능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즉, 사회에는 기능적으로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으며 각각의 일은 적절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보수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성취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한다.

[마] 사회적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상과 정서와 관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역사의 전개 과정 중에서 인간성과 개인차의 중요성, 권리와 의무, 사회, 개인, 진보, 과학, 예술 등에 관한 사상 체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동질적인 국민정신의 기초가 되고 있다. 부유한 자의 교육이든, 가난한 자의 교육이든, 전문 직업 교육이든, 산업 기술 교육이든 상관없이 모든 교육은 위와 같은 공통 요소를 아동에게 심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아동에게 어릴 때부터 집단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일성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의 동질성을 영속시키고 동시에 강화한다.

[바]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삼십 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삼십 분을 주면서 십 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이십 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는 두 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

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졌다. 활판 윤전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옵셋 윤전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논제 1] 제시문 [가]~[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501자 이상~600자 이하: 배점 25점]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1]에서는 기능론 혹은 갈등론의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고 있는 제시문들을 응시생이 정확하게 분류하고 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성취 기준 2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 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 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바]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 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 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 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바]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p.138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p.132- 133	제시문 [라]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당론』	강원택	박영사	2022	p.51-53	제시문 [가]	○
『사회학 본능』	랜들 콜린스 저, 김승욱 역	알마	2014	p.175-179	제시문 [나]	○
『교육과 사회학』	에밀 뒤르케임 저, 이종각 옮김	배영사	1978	p.69-70	제시문 [마]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 힘	2000	p.106-107	제시문 [바]	○

5. 문항 해설

[문제 1]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대비시키고 있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인 갈등론은 사회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본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획득한 지배집단은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지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피지배 집단은 이에 도전하므로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론은 갈등을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본다. 두 번째 관점인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공통의 도덕 감정, 유대감, 규범,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을 때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논제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범위에 충실하기 위해 원문에 상당한 수준의 첨언과 윤문을 가해 재구성 작업을 했음을 밝힌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1> (501~600자)

- 3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300자~400자 미만: 감점 20점
 400자 이상~450자 미만: 감점 10점
 650자 이상~700자 미만: 감점 10점
 700자 이상: 감점 2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가]-[바]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다],[바]는 갈등론(사회 갈등)에 해당되고, [나],[라],[마]는 기능론(사회 통합)에 해당된다. 이를 올바르게 분류하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가],[다],[바]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 [나],[라],[마]의 논지를 제대로 제시하면 10점 가점.
- ④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요약했으면 10점 가점 (표현력 등).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1]

[가]-[바]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다],[바]는 갈등론(사회 갈등)에 해당되고, [나],[라],[마]는 기능론(사회 통합)에 해당된다.

[가]는 정당(체계)은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서 기인한 사회집단들 간의 갈등(균열)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는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착취를 통해 혜택을 받지만 피지배계급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바]는 공장에서의 승진, 작업수당,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과 지배를 묘사하고 있다.

[나]는 범죄와 처벌 의례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도덕 감정과 감정적 유대를 강화시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라]는 역할의 중요성과 수행 능력의 차이에 따라 회사 대표(CEO)와 근로자 간의 차등 대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하여 하여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마]는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공통적인 사회적 가치, 규범, 정신을 학습한다고 설명한다. (577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문제 1]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사회·문화’, ‘세계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면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4)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사’ 과목의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서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성취기준은 [12사문01-01], [12사문04-01], [12세사04-04]와 관련되어 있고 그 밖에 국어, 독서, 문학의 성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1]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 및 원리 이해, 독해력, 자료 분석력, 내용을 분류하는 능력, 글의 맥락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이는 사회과,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 1]과 관련된 제시문 [가]~[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문제 1]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문제 1]에서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및 내용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와 ‘세계사’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와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 제시문 [마], 제시문 [바]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 1]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 및 원리 이해, 독해력, 자료 분석력, 내용을 분류하는 능력, 글의 맥락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이는 사회과,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1]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채점 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정량 평가는 첫째,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둘째, 원고지 분량에 관한 것으로 원고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라는 국어과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과 갈등론을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같은 입장을 가진 내용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답안작성 : [문제 1]에서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다. 요구하는 답안 작성 시간 30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바]는 서로 다른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쉽게 독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1]이 서술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문제 1]에서 제시문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여 분류한 후 답안을 작성하는데 주어진 30분은 적정하다.

[문제 1] 답안 작성 분량은 501자 이상에서 600자 이하로 제시되었다. 501자 미만으로 하면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하는데 부족한 분량일 될 것이다. 600자 이상으로 하면 제시문 요약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논제 1]에서 주어진 501자 이상에서 600자 이하가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논제 1]은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과 갈등론을 다루고 있고, ‘세계사’ 과목과 ‘국어’, ‘문학’, ‘독서’ 과목과도 연관된다.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분석을 토대로 개인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하고 실행하는 통찰력과 실천 의지를 기르는 것으로 사회과의 목표와 부합한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개념 및 원리 이해, 독해력, 자료 분석력, 내용을 분류하는 능력, 글의 맥락에서 자료를 파악하는 능력 등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논제 1]은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논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3-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세계사, 통합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군열, 갈등, 국민혁명, 산업혁명, 유대감,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혁명, 사회적 불평등, 적재적소, 동질성, 투쟁, 경제위기, 국민의 통합, 지배자, 폭력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자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사]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을 사적으로 독점한 세력, 투기를 일삼는 세력, 분별없이 금융 자산을 굴리는 관행, 사익을 추구하는 계급적 파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겁을 주며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이들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자기 사업을 지원하는 한낱 조력자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조성된 자본 위에 세워진 정부는 조직 폭력단이 만든 정부만큼 위험할 뿐입니다. 저는 그들과 언제든 싸울 것이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1997년 IMF 경제위기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반지, 돌반지 등의 금붙이를 든 사람이 은행마다 줄을 섰다. 지역·계층을 넘어 전국에서 약 350만 명이 참여하여 약 227톤의 금을 모금했고, 이 금으로 나라의 빚을 갚고,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자] 인간은 첫째, 이득을 위해 침략하고, 둘째, 안전을 위해서 공격하고, 셋째, 공명심 때문에 명예 수호를 위해 공격자가 된다. 또한 인간은 첫째, 타인과 가족, 가족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둘째,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셋째, 한 마디 말, 한 번의 웃음, 의견 차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거나 간접적으로 그들의 친척, 벗, 민족, 직업, 가문을 얕잡아 보는 사소한 표현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

[논제 II]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논제 II]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이 사회 현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시생으로 하여금 선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세 개의 추가 지문에 담긴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서 각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 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 [아]
	성취 기준 2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사04-04] 시민 혁명과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산업혁명의 세계사적 의미를 해석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 용하여 평가한다.	제시문 [아]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12경제03-01]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제시문 [아]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1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사]
성취 기준 2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 [아]
성취 기준 3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자]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 기준 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12문학02-02]	제시문

	기준 1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바]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가] ~ [자]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p.138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p.132-133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	2019	p.202	제시문 [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p.186	제시문 [아]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정당론』	강원택	박영사	2022	p.51-53	제시문 [가]	○
『사회학 본능』	랜들 콜린스 저, 김승욱 역	알마	2014	p.175-179	제시문 [나]	○
『교육과 사회학』	에밀 뒤르케임 저, 이종각 옮김	배영사	1978	p.69-70	제시문 [마]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성과 힘	2000	p.106-107	제시문 [바]	○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최공웅·최진원 역	동서문화사	1988	p.131	제시문 [자]	○

5. 문항 해설

[논제 II]는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사],[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제시문 [사]는 갈등론의 관점에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사회 불평등을 교정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이들과의 싸움(갈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기능론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아]는 갈등론의 관점에서 견제되지 않은 지배 집단의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기능론의 관점에서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자]는 인간 집단이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반면 기능론의 입장에서 제시문 [자]는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갈등과 혼란의 상황으로 사회 통합과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포함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II> (601~700자)

400자 미만: 감점 40점 (= 기본 점수 60점)

400자~500자 미만: 감점 20점

500자 이상~550자 미만: 감점 10점

750자 이상~800자 미만: 감점 10점

800자 이상: 감점 20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는 경제적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독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투기, 위협, 관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안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아]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아]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유대와 신뢰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능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③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자]를 적절히 평가하면 10점 가점 (아래 내용 참조)

- 갈등론의 관점에서 [자]는 인간 집단은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지문은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 기능론의 관점에서 [자]는 사회적 투쟁, 폭력, 혼돈의 상태로 사회가 잘 작동하지 않는 병리적인 현상이다. 사회가 투쟁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통합과 사회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④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이유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아],[자]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가점
-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아],[자]를 분석적이고 설득력 있게 서술했으면 가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문제 II]

(1) [가],[다],[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개의 관점 중에서 나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가],[다],[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갈등과 대립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오히려 사회 변화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론은 사회적 강제, 억압, 착취, 부정의를 폭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경제적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의 독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투기, 위협, 관행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안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교정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이들과의 싸움(갈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아]는 지배 집단인 정부와 대기업의 잘못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국민들의 단합한 힘으로 극복한 사례를 설명한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사례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위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는 인간 집단은 부, 권력, 명예, 사회적 인정, 안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이 지문은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652자)

(2) [나], [라],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두 개의 관점 중에서 나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나],[라],[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사회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 안정과 질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각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울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며 사회 발전과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사회 통합을 추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 계급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지도자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는 사회적 위기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유대와 신뢰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능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자]는 사회적 폭력과 혼란으로 사회 갈등이 만연한 상황으로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사회가 혼란과 투쟁의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사회 신뢰 확보)과 사회질서 유지(사회 규범 확립)가 필요하다. (635자)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논제 II]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사회·문화’, ‘세계사’,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면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4)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세계사’ 과목의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서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통합사회’ 과목의 (6) 사회 정의와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 과목의 (3) 국가와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윤리와 사상’ 과목의 (4) 사회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성취기준은 [12사문01-01], [12사문04-01], [12세사04-04], [10통사06-02], [12경제03-01], [12윤사04-05], [12윤사04-03], [12윤사04-02] 관련되어 있고 그 밖에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의 성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논제 II]에서는 각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이해하는 독해력 등을 요구하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 자신의 의견을 제시문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밝히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추론력, 비판적 사고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필자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등도 요구된다. 이에 필요한 역량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

* 자료 : [논제 II]에서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및 내용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세계사’,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제시문 [가]는 ‘사회·문화’와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 [라], 제시문 [마], 제시문 [바]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사회·문화’, ‘통합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제시문 [자]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및 내용을 담고 있어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제 II]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 면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점 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정량 평가는 하나는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찍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원고지 분량에 관한 것으로 둘 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국어과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채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채점 기준은 필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추론하며 읽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능력 등 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중요

역량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논제 II]는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한 후에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한 것이다. 주어진 제시문 [가]-[자]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이미 [논제 I]에서 제시문 [가]-[바]에 대해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실질적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어진 40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논제 II]의 답안 작성 분량은 601자 이상에서 700자 이하로 제시되었다. 단순히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 I]의 관점을 선택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는 것으로, 600자 미만이면 부족한 분량일 될 것이다. 700자 이상으로 하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 제시문을 평가하는 글의 논지가 벗어날 수 있어 무의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종합적 사고력, 비판적 능력, 논술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논제 II]에서 주어진 601자 이상에서 700자 이하가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논제 II]는 [논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을 지지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자신이 지지한 관점으로 바탕으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는 것이다. [논제 II]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분류하고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그 적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고 사회과, 도덕과 및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논제 II]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경희대학교 문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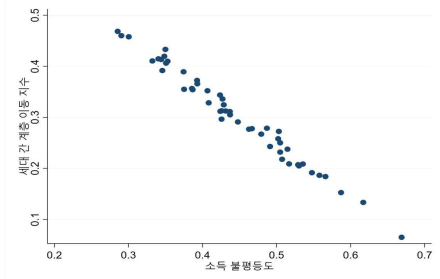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사회계열 / 3-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수학, 독서, 화법과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소득 불평등도, 계층 이동, 사회 통합, 사회발전지수, 사회평등지수, 일차함수
예상 소요 시간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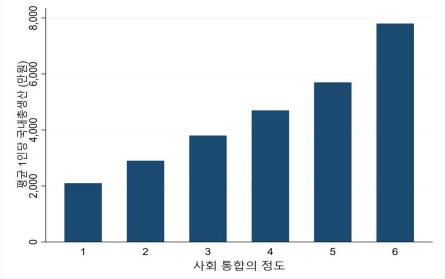
2. 문항 및 자료

[문제 III]

<자료 1>은 각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조사한 후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소득 분배가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간 계층 이동 지수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정도를 수치로 측정한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은 사회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 <자료 2>는 국가들을 사회 통합의 정도에 따라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평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회 통합의 정도가 1에서 6으로 커질수록 더 통합적인 국가다.



<자료 1>



<자료 2>

(1)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각각의 자료가 [문제 I]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2) 사회평등지수 x 와 사회발전지수 y 의 관계는 일차함수 $y = ax + b$ 로 표현되는데 이 일차함수와 그 계수들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

① $-2a + b = 2$

② $a^2 + b^2 = 8$

③ 사회평등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0 \leq x \leq 1$). 사회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회는 더 평등하고, 그 지수가 낮을수록 사회는 더 불평등하다.

④ 주어진 사회평등지수의 구간($0 \leq x \leq 1$)에서 y 는 양의 값을 갖는다. 사회발전지수가 더 큰 값을 가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 정도를 나타낸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계수 a 와 b 를 갖는 일차함수를 구하시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시오.
[수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배점 35점]

3. 출제 의도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고사는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사회 통합)과 갈등론(사회 갈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과학의 핵심적 주제로서, 이에 대한 이해는 대학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주제에 대해 응시생이 얼마만큼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 얼마나 명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지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한다. 나아가, 최근 사회과학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불평등과 임금 격차,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정확하게 해석하고 수리적 계산 및 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도 평가한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개념과 예시는 통합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사회·문화 등 고등학교 교과 과정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응시생의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서적, 언론 기사도 이용하여 다양한 성격의 제시문을 활용해 출제했다.

[문제 Ⅲ]은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연립이차방정식을 풀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2. 교과명: 수학

과목명:		관련
성취 기준 1	[10수학01-09]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논제 Ⅲ
성취 기준 2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18	p.132-133	제시문 [라]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Miles Corak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82 그림 1	202	-	○

5. 문항 해설

[논제 Ⅲ]은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 통합과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자료 1>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도와 세대 간 소득의 이동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응시생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그림을 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갈등론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자료 2>는 사회 통합의 정도와 개인의 생산성의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출제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논제 Ⅲ]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연립이차방정식 및 일차함수를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일차함수는 더 평등한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제시문 [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의 답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수험생들은 사회 현실을 분석하는 과정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선다형의 경우 생략 가능

1. 점수 배정

- ① 만점: 논제 당 100점 (3 논제 도합 300점)
- ② 기본 점수: 논제 당 60점
-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 이하)

2.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가능.
- ③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 거쳐 처리.

2) 원고 분량에 따른 감점

- * 원고 분량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내용이 더 중요).
- *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10~20자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10점이나 20점을 일률적으로 감점하지 않음.
- *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
- * 답안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쓴 경우는 0점으로 처리.

<논제 Ⅲ>

-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어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

3) 원고 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으로 간주.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

3. 채점 기준: 내용평가

3) <논제 Ⅲ>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자료 1>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덜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것이 불평등은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보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이면 가점 10점.
- ② <자료 2>에서 더 통합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생산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이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서술하면 가점 10점.
- ③ 연립이차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차함수를 정확하게 도출하면 가점 10점.
- ④ 계산을 통해 도출된 일차함수가 사회평등지수가 높을수록 사회발전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점을 들어 제시문 [라]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 가점 10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논제 Ⅲ]

(1) <자료 1>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덜 발생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사회 불평등이 지배 집단의 권력 및 강제에 의한 것으로, 기존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고 보는 갈등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 2>는 더 통합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생산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 통합과 질서를 강조하는 기능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a 와 b 는 조건①과 조건②를 만족하는 연립이차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다.

조건①에서 $b = 2a + 2$ 이므로 이것을 조건②에 대입하면

$$a^2 + (2a + 2)^2 = 8 \text{이고, 이것을 정리하면}$$

$$5a^2 + 8a - 4 = 0 \text{이다.}$$

$$\text{좌변을 인수분해하면 } (a + 2)(5a - 2) = 0 \text{이다.}$$

$$\text{따라서 } a = -2 \text{ 또는 } a = \frac{2}{5}$$

$$\text{이를 조건 ①에 대입하면 } b = -2 \text{ 또는 } b = \frac{14}{5}$$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begin{cases} a = \frac{2}{5} \\ b = \frac{14}{5} \end{cases}$ 또는 $\begin{cases} a = -2 \\ b = -2 \end{cases}$ 이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a = -2$, $b = -2$ 인 경우 주어진 범위의 $x(0 \leq x \leq 1)$ 에 대해 y 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조건④를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a 와 b 는 $\begin{cases} a = \frac{2}{5} \\ b = \frac{14}{5} \end{cases}$ 이고

사회평등지수(x)와 사회발전지수(y)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차 함수는

$$y = \frac{2}{5}x + \frac{14}{5} \text{ 이다.}$$

제시문 [라]는 사회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평등지수와 사회발전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8. 대학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구분	세부판단기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에 담겨 있는 주요 개념, 내용, 원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채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점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한가?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적정한가? 요구하는 답안 작성 분량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정한가?

[문제 Ⅲ]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사회·문화’와 수학과 교육과정인 ‘수학’에 근거하여 출제되었다.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면에서는 ‘사회·문화’ 과목의 (4) 사회 계층과 불평등에서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수학’ 과목의 (1) 문자와 식 [5] 이차방정식과 이차함수에서 이차함수와 관련되어 있다. 주요 성취기준은 [12사문04-01], [12사문04-02], [10수학01-09], [10수학01-11] 관련되어 있고 그 밖에 독서, 화법과 작문의 성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Ⅲ]은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해력, 수리 능력, 논리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문제 Ⅲ]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문제 Ⅲ]은 (1)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통합과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는 ‘수학’ 과목의 주어진 4개의 조건 및 연립이차방정식을 활용하여 사회평등지수와 사회발전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Ⅲ]은 통합 논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이해력, 수리 능력, 논리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된다. 그러므로 [문제 Ⅲ]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채점 기준은 정량 평가와 내용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정량 평가는 하나는 원고지 사용법과 관련된 것으로 찍어쓰기 포함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원고지 분량에 관한 것으로 둘 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라는 국어과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채점 기준의 내용 평가와 관련하여 답안을 도출할 때 풀이 과정을 고려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부분 점수도 부여하고 있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채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성취기준은 [12사문04-01], [12사문04-02], [10수학01-09], [10수학01-11] 관련되어 있고 그 밖에 독서, 화법과 작문의 성취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문제 Ⅲ]은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통합과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기능론과 갈등론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수학’ 과목의 주어진 4개의 조건 및 연립이차방정식을 활용하여 사회평등지수와 사회발전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는 사회가 더 평등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발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어 각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50분이라는 시간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제 Ⅲ]은 수리논술로서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 있다. [문제 Ⅰ]과 [문제 Ⅱ]와 다르게 일정한 분량의 글자 수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요구하는 답안 작성 시간 50분과 작성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한 것은 수험생의 수준에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 Ⅲ]은 소득 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통합과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고등학교연립이차방정식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이는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토대로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사고력을 함양하는 사회과의 목표와도 부합한다. 또한 [문제 Ⅲ]은 사회과, 수학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습요소,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문제 Ⅲ]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적합하게 출제된 문제라고 판단된다.